

김순영 꽃

- 박효명

“순영이, 순영이. 그만 좀 해. 체하겠어, 정말.”

엄마는 탁 소리가 나게 숟가락을 내려놨다.

“언니한테 말버릇하고는. 버르장머리 없이.”

할머니가 엄마를 췌려봤다.

“언니는 무슨. 죽었으면 끝이지.”

엄마 말에 할머니도 숟가락을 팽개쳤다. 머지않아 할머니네 집 식탁유리에 금이 갈 거다. 같이 밥을 먹을 때마다 식탁 위에 숟가락을 내던지는 엄마랑 할머니 덕분에.

입을 달짝거리던 엄마가 거실로 나가버렸다. 나는 엄마 뒤를 따라갔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마당으로 나가는 엄마가 보였다.

“들어가서 숙제나 해.”

군데군데 철이 벗겨진 파란 대문을 엄마가 쿵 닫았다. 봄방학인데 무슨 숙제를 하라는 건지. 엄마는 아직도 우리가 서울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 사는 줄 아나보다. 그때는 학원을 하도 많이 다녀서 숙제가 산더미였다. 지금은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닌다.

식탁 위에는 먹다 만 밥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남은 밥을 음식물쓰레기 봉지에 넣고 그릇은 설거지통에 담갔다.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수세미에 풍풍을 문히는데 눈물이 났다. 고무장갑을 벗어던지고 식탁 의자에 앉았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나는 전교 부회장 고은별이었다. 전교 일등만 도맡아하는 엄친딸 고은별이기도 했다. 원래대로면 봄방학 동안 육학년 선행학습 학원을 다니거나 영어 캠프에 갔을 거다. 할머니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지금 나는 쫄딱 망한 고사장네 고은별, 광주 할머니네 얹혀사는 고은별이다.

“은별이 너도 순영이 얘기 듣기 싫냐?”

머리에 하얀 띠를 두른 할머니가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냈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모는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저 세상으로 갔다. 나는 이모를 잘 모른다. 할머니가 하는 이모 이야기에 관심도 없다.

“그렇지만 엄마가 싫어하니까 이모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순미가 뭐 순영이가 싫어서 그러냐. 지 언니 이름만 나와도 그리우니까 무조건 안 들으려고 하는 게지. 나라고 순영이 얘기하는 게 편하기만 해? 사람이 마음에 쌓아두기만 하면 병된다. 자꾸 말해서 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야지.”

할머니가 물병에 입을 대고 꿀꺽꿀꺽 물을 마셨다.

나는 고개를 가우뚱했다. 할머니 말을 몽땅 알아듣기는 힘들었다. 이모 이야기만 나오면 신경질을 부리는 엄마가 이모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니. 사실 엄마가 이모를 싫어하든 그리워하든 난 상관없다. 짜증내는 엄마 모습을 보기 싫은 것뿐이니까.

원래 엄마는 화를 잘 안 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대부분 웃고 넘겼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누가 엄마차를 긁었을 때조차 티도 안 난다며 그냥 넘어간 사람이 우리 엄마다.

그런 엄마가 요즘 부쩍 짜증을 부렸다. 내가 피망을 안 먹거나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으면 화부터 냈다. 예전 같으면 좋은 말로 타일렀을 텐데 말이다. 이모 이야기만 안 하면 엄마가 신경질을 부리는 횡수가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 할머니가 이모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다. 입고 갈 옷이 없으며 꼴을 낸 엄마가 아침도 안 먹고 부랴 부랴 나갔다. 엄마는 면접을 보러 간댔다. 서울서 살 때는 전업주부였는데 여기 와서 일을 시작하기로 한 거다. 빚을 다 갚으려면 서울에서 아빠 혼자 벌어서는 어렵도 없단다.

“할미 시장 갈 건데 뭐 사다주리?”

점심을 먹자마자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챙겼다.

“아보카도, 샐러리, 브로콜리요.”

“뭐? 아카시아가 어째?”

할머니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나는 헛바닥만 쑥 내밀었다.

“원 애도 싱겁긴. 문단속 잘 하고.”

할머니는 노인정까지 들렀다 저녁밥을 지을 때나 돌아올 거다. 엄마도 면접이 끝나면 선배 아줌마랑 만날 거라고 했다. 저녁때까지는 나 혼자 집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할머니랑 엄마가 다투는 소리를 안 들어도 되고, 엄마 신경질이랑도 잠깐 안녕이다. 만세!

나무 사다리를 타고 다락으로 올라갔다. 집 꼭대기에 있는 다락방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다. 뭔가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다. 있는 거라곤 서너 명이 한 줄로 앉아도 자리가 남을 만큼 커다란 앉은뱅이책상뿐이지만.

책상 앞에 앉아 고개를 들었다. 바깥 지붕 때문에 삼각형인 벽이 눈에 들어왔다. 세모난 벽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마저도 마음에 들었다.

“아구구, 허리야.” 하고 할머니 흉내를 내며 앉은 자리에서 뒤로 벌렁 누웠다. 책상 위에는 내가 풀던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다.

“어, 저게 뭐지?”

누운 채로 엉덩이를 밀어서 책상 밑으로 쑥 들어갔다. 책상 아랫면에 엄지손가락만한 홈이 패여 있었다. 홈 부분에 손가락을 넣고 앞뒤로 밀어 봤지만 꼼짝도 안 했다. 밑으로 당기자 나무뚜껑이 아래로 획 열렸다.

뒤가 이마를 톡 치고 옆으로 대굴 굴렀다. 이마를 문지르며 일어난 나는 방바닥에 놓인 걸 노려봤다. 바닥에 있는 건 네모난 공책이었다. 감히 내 이마에 혹을 만들다니. 확 갖다 버려야지 생각하면서도 무슨 공책인지 궁금했다.

공책을 집어 들어 요리조리 살펴봤다. 내 손에 딱 들어올 정도 크기고 스프링은 안 달렸다. 원래 파란색이었을 표지는 빛이 바래 있었다. 딱 봐도 오래된 것 같았다. 이까짓 게 뭐라고 비밀서랍에다 넣어 둔건지 모르겠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책상 앞에 다시 앉았다. 비밀서랍에서 나온 공책은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다. 문제집이나 더 풀 생각이었다.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오백장도 넘어 보이는 공책 책장을 휘리릭 넘겼다. 앞에 몇 십장쯤은 글씨가 쓰여 있고, 뒷부분은 그냥 누런 종

이뿐이었다.

뒤라고 썼는지 잠깐 읽어 볼까. 공책을 내 앞으로 끌어당기고는 책장을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다. 책장 윗부분마다 날짜가 쓰여 있었다. 공책은 일기장이었던 거다.

“고은별, 뭐하느라 대답도 안 해?”

엄마가 어깨를 툭 쳤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엄마?”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안 좋아서 일찍 왔다. 왜?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엄마는 괜히 또 트집을 잡더니 책상 위에 있는 일기장을 집어 들었다. 나는 엄마 손에 있는 걸 낚아챘다.

“왜 이렇게 못 되게 굴어? 수상하다, 너.”

눈을 세모로 뜬 엄마가 일기장 쪽으로 손을 뻗었다.

“조금만 더 보면 돼. 나 다 읽으면 보여줄게.”

나는 손을 껌싸게 위로 쪽 올렸다. 잠깐만 본다는 엄마랑 아직 안 된다는 나랑 실랑이를 벌였다. 일기장이 내 손에서 엄마 손으로, 엄마 손에서 내 손으로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

엄마는 일기장 뒤표지를 나는 앞부분을 잡았다. 줄다리기를 할 때처럼 일기장이 팽팽해졌다. 한번만 더 힘을 주면 내 손에 쪽 들어올 것 같았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일기장을 잡아당겼다.

찌지직 소리를 내며 일기장이 반으로 갈라졌다. 일기장이 둘로 찢어지는 장면이 영화 슬로 모션처럼 보였다. 책장이 뜯어지면서 하얀 가루가 파바바박 튀었다. 처음에는 하얀 종이가루였는데 곧 빨간색, 파란색가루로 변했다. 마지막에는 반짝이는 은색가루가 되어 내 몸에 쏟아져 내렸다.

은빛가루가 들어갔는지 눈이 따끔거리고 눈물이 났다. 눈을 꼭 감는 동시에 뒤로 나자빠진 나는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엉덩이는 얼얼하고 눈은 따끔거렸다. 무엇보다 일기장이 찢어져서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

“엄마 진짜 왜 그래? 요즘 엄마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는 것도 다 그럴 수 있다고 쳐. 아빠가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주느라 집까지 뺏겨서 속상한 거 나도 아니까. 근데 이걸 너무한 거 아냐?”

손등으로 눈을 문지르면서 나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목에 걸려 있던 사탕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다. 마음속에 쌓아두지 말고 얘기를 해야 한다던 할머니 말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러게 누가 그렇게 뻔대래?”

양칼진 목소리가 귀를 때렸다.

“누가 안 보여준대? 끝부분만 읽으면 된다고…….”

“뭐? 계속 해보시지, 왜?”

겨우겨우 눈을 뜨고 악을 쓰던 나는 입을 다물었다. 뺨글머리 우리 엄마는 어디로 가고 바가지머리를 한 여자애가 눈앞에 서 있었다. 팔짱을 끼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말이다. 말투며 행동이 엄마랑 판박이었다.

나는 방안을 두리번거렸다. 삼각형 벽이랑 창문, 커다란 앓은뱅이책상까지 있는 걸 보면 분

명 내가 있던 다락방이 맞다. 가만. 책상 위에 있는 저 책들은 뭐지? 내 문제집은 온데간데없고 엄청 많은 책이 보였다. 책상 저 끝에서 이 끝까지가 책들로 빼곡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다시 방을 휘 둘러봤다. 다락방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책상 옆에는 내 키만 한 나무장이 서 있었다. 나무장 위로 이불이 차곡차곡 쌓인 게 보였다. 방문 맞은편 벽에는 조로록 박힌 못이 있었다. 옷을 걸어 놓는 것 같은데 더러빈 못도 있긴 했다.

벽에 붙어 있는 종이가 눈에 딱 들어왔다. 국어교과서보다 작고 두꺼워 보였는데 ‘14’라는 숫자가 크게 쓰여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서 종이를 몇 장 넘겨봤다. 한 장에 날짜가 하나씩만 쓰여 있는 달력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며칠인지가 가운데 크게 쓰여 있고, 년도랑 몇 월인지는 윗부분에 작게 쓰인 신기한 달력이었다. 그럼 오늘이 14일인 거고, 몇 년도 몇 월이지. 달력을 보던 나는 얼음이 되고 말았다. 오늘은 1980년 5월 14일이었다.

“말하다 말고 뭐하는 거야, 고은별?”

여자애는 이제 손가락 끝을 텅텅 뿜겼다. 설마. 설마. 나는 책상이랑 나무장 사이에 있는 나무관 거울을 들어 내 얼굴을 비춰봤다. 나는 변한 게 없었다. 휴 하고 한숨을 내쉬 나는 여자애한테 거울을 내밀었다. 눈을 썰쭉하게 뜬 여자애가 거울을 받아들였다.

“어머머! 나 왜 이래? 이거 나 맞아?”

여자애는 울상을 지었다.

“어, 엄마. 마, 맞지? 우리 엄마 김순미 맞지?”

내 물음에 여자애가 “그럼 내가 뭐로 보여?” 하고 짜증을 내며 눈을 부라렸다. 우리 엄마가 맞는 것 같다. 엄마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어떻게 해, 진짜.” 하고 계속 중얼거렸다. 마흔여덟 살 어른에서 아이가 되어버린 엄마는 충격이 커 보였다.

나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엄마랑 평생 살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는 절대 못 할 것 같다. 어떻게든 이 이상한 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했다. 원래 우리가 있던 다락방으로 돌아갈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다.

“엄마, 일기장 반쪽 어디 있어?”

내가 내민 손을 보고 엄마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고 툭 쏘아붙였다.

“일기장이 찢어져서 이렇게 된 것 같단 말이야. 일기장을 도로 붙이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엄마는 확실한 거냐고 나를 다그쳤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생각나는 게 그것밖에 없어.”

“그래 뭐.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엄마가 별 거지같은 일기장이 다 있다며 화를 냈다.

나는 책상 밑 비밀서랍부터 열었다. 이 비밀서랍 때문이냐며 엄마가 이번에는 책상을 췌려봤다. 나는 엄마 말을 못들은 척 하고는 방안을 구석구석 뒤졌다. 일기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내 일기도 아닌데 그냥 보라고 할 걸. 마지막 하루치만 다 읽고 엄마한테 “짠!” 하고 보여 주려던 거다. 뭐든 끝장을 봐야하는 내 성격이 문제다. 엄마가 순영이 이모 일기장을 보면 깜

짜 놀라면서도 좋아할 것 같았다. 할머니 말대로 엄마가 이모를 그리워하고 있다면 말이다.

“순미야! 밥 먹으래도.”

아래층에서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났다. 방문 고리를 돌리려는 엄마 손을 얼른 잡았다.

“엄마, 설마 지금 내려갈 건 아니지?”

“왜? 나 배고파 죽겠어. 밥부터 먹자.”

엄마는 아까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안 좋다더니 순 거짓말이었나 보다. 내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났다.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따라 일층으로 내려갔다.

부엌에는 새까만 머리에 주름살이 없는 할머니가 서 있었다. 젊은 할머니가 너무 신기해서 나는 자꾸만 힐끔거렸다. 엄마는 서울에서 전학 온 친구라고 나를 소개했다. 내 이름이 좀 별나다는 말은 했지만 할머니는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서울에 간 할아버지랑 이번에 대학에 들어간 순영이 이모 얘기만 했다.

한참 밥을 먹는데 “엄마. 순미야.” 하고 부르며 누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머리를 뒤로 가지런히 묶은 언니였다. 키가 크고 날씬한 언니는 것이 넓직한 하얀색 블라우스에 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어깨에 멘 핸드백이 달랑거렸다.

“어, 어, 언니?”

엄마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앞으로 달려 나갈 것처럼 벌떡 일어선 엄마는 그 자리에 우뚝 섰다. 엄마 다리가 덜덜 떨리는 게 보였다. 언니가 엄마 앞으로 다가왔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언니는 엄마 머리를 형클어뜨렸다. 윗니로 아랫입술을 꼭 깨문 엄마가 팔을 뻗어 언니 목을 감싸 안았다. “순영이 언니.” 하고 부르는 엄마 목소리를 나는 놓치지 않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이모는 정말 예뻐다. 나도 이모랑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입도 뻥긋 못했다. 엄마가 언니, 언니하면서 이모한테 착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더러 이름이 예쁘다고 한 게 이모랑 나눈 처음이자 마지막 말이였다.

할머니는 우리 순영이, 순영이하면서 이모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다. “순영이 너 혹시 데모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하고 말 할 때만 무서운 목소리였다.

“엄마도 참. 민주화성회라니까.”

“뭐든 하지 마. 그놈도 만나지 말고. 학생회에서 한 자리 한대서 괜찮은 놈인 줄 알았더니. 민주화니 뭐니 데모나 하는 놈 어따 써먹어?”

“그놈이 아니고 석주. 그리고 내가 전에 말했지? 민주화가 돼야 우리가 살고, 나라도 바로 서는…….”

무슨 말을 더 하려던 이모랑 내 눈이 딱 마주쳤다. 이모는 슬쩍 입을 다물었다. 할머니는 하지 말라는 말만 계속 했다. 이때부터 할머니는 한 말을 하고 또 하는 도돌이표였나 보다.

밥을 다 먹은 우리는 다락방으로 갔다. 자리를 깔고 순영이 이모, 엄마, 나 순서로 누웠다. 이층에 커다란 방이 두 개나 있지만 거기는 하숙을 친다고 했다. 대학생 언니 오빠들한테 방도 빌려주고 밥도 해주는 거다. 할머니는 그걸로 돈을 번댔다. 그래서 엄마랑 이모가 다락방을 쓰는 거다.

감고 있는 눈 위로 그림자가 졌다. 눈앞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건 순영이 이모 손이 분명했

다. 엄마라면 내 어깨를 무지막지하게 흔들어서 깨웠을 테니까. 귀찮기도 하고, 이모는 내가 잠들어 있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자는 척을 했다.

순영이 이모는 앉은뱅이책상 앞에 앉았다. 국어사전보다 두꺼운 책을 뒤적이기도 하고 종이 에다 뭘 쓰기도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이모가 책상 밑에 손을 넣어 비밀서랍을 열었다. 일기장을 서랍 안에 넣은 이모는 방에서 나갔다.

“엄마, 민주화성회가 뭐야?”

엄마는 자는 척만 하고 말이 없었다. 엄마는 한 번 잠들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이불에 딱 달라붙은 것처럼 말이다. 아까부터 이리 누웠다 저리 누웠다 뒤척이는 걸 보면 절대 잠들지 않은 거다.

내가 자꾸 말을 걸자 엄마가 귀찮은 듯 입을 열었다.

“지금은 독재시대야. 군인들이 자기들마음대로 하는 때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자유를 달라 하고 집회를 여는 거지. 결국 국민들이 독재를 몰아내서 민주국가가 된 거야. 역사 논술 학원에서 안 배웠어?”

엄마는 서울에서 다닌 역사 논술 학원 얘기를 했다. 나는 조선시대까지 배우고 광주로 왔다. 조선시대에도 왕이랑 귀족은 부자로 자유롭게 살고, 일반백성이나 노비는 자유도 없이 힘들게 살았다고 했다. 아마 조선시대랑 비슷한 그런 시대인가 보다.

“아, 생각났다. 우리가 민주주의 되는데 이모도 한몫했다고 할머니가 그랬는데. 맞지?”

“그래. 쓸데없이 그러다 죽은 거잖아. 가만히 있을 것이지.”

벌떡 일어나 앉은 엄마가 가슴을 쿵쿵 쳤다.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완전 잘 된 거 아냐? 지금 이모가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안 죽게 막으면 되잖아.”

이모 제삿날은 5월 18일이다. 할머니한테 듣고 또 들어서 이모가 저 세상에 간 게 1980년이라는 것도 안다. 오늘은 5월 14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는 거다.

“맞아.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려서 뭘 몰랐지만 지금은 아니야. 언니가 죽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아서 나도 손에 힘을 주었다.

누가 어깨를 흔들어서 부스스 눈을 떴다. 바가지머리 엄마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엄마 뒤로 보이는 창문에서 햇살이 쏟아졌다. 이모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었다. 학교에 가냐고 묻는 엄마한테 이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문에서 벨이 멍동멍동 울렸다. 벨소리가 어찌나 큰지 귀가 다 멍멍했다. 우리 셋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인터폰으로 누구인지 묻는 이모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색 바랜 청바지에 줄무늬 셔츠를 입은 뺨뺨머리 오빠가 현관으로 들어왔다. 이모는 막 나가려던 참이라며 얼굴을 붉혔다. 오빠가 “가는 길인데 뭘.” 하고 머리를 긁적였다. 엄마는 “할머니가 말한 그놈이야. 재수 없어.” 하고 내 귀에 속삭였다.

“인사해. 순미는 전에 본 적 있지? 애는 순미 친구 은별이. 이쪽은 내 친구 이석주.”

“정확히 말하자면 남자친구지. 하하하. 반가워, 꼬마아가씨들. 휴교령 때문에 집에 있었구나?”

오빠가 말을 거는데도 엄마는 괜히 딴 짓만 했다. 눈앞에 오빠가 없는 것처럼 구는 엄마 때문에 이모는 안절부절못했다.

꼬마아가씨라는 둥 느끼한 말을 하는 사람은 나도 별로다. 구역질이 나오려는 걸 꼭 참고 아주 예의바르게 인사를 했다. 심술쟁이 엄마를 대신해서, 오빠한테 미안해하는 이모를 위해서였다.

“우리도 언니 따라가면 안 돼?”

엄마가 갑자기 이모 팔에 매달렸다.

“글쎄. 요즘 어수선해서 데리고 가기 좀 그런데.”

“민주화성회? 그거 우리도 같이 하면 안 돼요?”

망설이는 이모한테 내가 재빨리 물었다.

“그래, 언니. 우리도 해야 하는 거 아냐?”

“흠. 너희랑 같이 할 건 아닌데.”

이모가 엄지손톱을 물어뜯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지. 우린 평화적으로 하니까 위험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도 애들은 너무 어리잖아.”

“어리다고 눈 가리고 귀 막고 살게 할 순 없지. 미래에는 꼬마아가씨들이 주인공일 테니 우리 역사를 직접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오빠가 엄마랑 나를 보며 씩 웃었다.

“근데 역사를 꼭 알아야 하나.”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이모가 내 이마에 콩 꿀밤을 먹였다. 나는 얼떨떨한 얼굴로 이모를 쳐다봤다. 이모 손이 다시 내 머리 가까이로 왔다. 고개를 옆으로 살짝 뺀 덕분에 이번에는 이모 손을 피할 수 있었다.

“은별이가 조금 전에 꿀밤 맞은 걸 기억하지 못했으면, 지금 내 손을 피할 수 있었을까?”

이모는 내 대답을 듣지도 않고 “그게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 아닐까.” 하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오빠랑 이모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이야기를 한참이나 했다. 뭐라는 건지 전부 알아들은 건 아니지만 우리를 데리고 갈 거라는 말은 분명히 알아들었다.

집에서 이모네 학교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 교문 앞에 아주 많은 아저씨들이 서 있는 게 보였다. 대부분 덩치가 컸고, 모두 까만색 옷을 맞춰 입고 있었다. 학교 안에 못 들어갈까 봐 걱정을 했는데 우리를 막지는 않았다. 나랑 엄마가 들어 갈 때는 옆으로 비켜서서 길을 넓게 만들어주기까지 했다.

교문 안에 들어서자마자 엄마랑 내가 “우아!” 하고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여기 완전 좋다, 엄마.”

나는 학교가 완전 후질 거라고 생각했다. 다 낡아빠진 건물이 한, 두 개나 있을까 싶었는데 아니었다. 국립 대학교라더니 건물이 엄청 많았다. 이모 말로는 계열별, 전공별, 학과별로 건물이 따로 있는 거였다. 땅도 어찌나 넓은지 한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가려면 꽤 많이 걸어야

할 것 같았다.

“언니 입학식 날 왔던 거 기억난다.”

내 말을 들은 건지 만 건지 엄마는 혼자 신나서 짱충댔다. 이모를 감시하자던 엄마가 이모랑 오빠는 저 뒤에 팽개쳐두고 혼자 앞으로 막 뛰어갔다. 어디선가 라일락 향기가 날아와 코끝을 간질였다. 우리는 가장 큰 건물 이층으로 갔다.

이모가 ‘학생회’ 라는 딱지가 붙은 문을 열었다. 넓은 방이 눈에 들었다. 시멘트벽은 빨간 글씨가 쓰인 대문짝만한 종이랑 포스터로 가득했다. 장판이 깔린 바닥은 신발자국이랑 라면국물 같은 걸로 더러웠다.

방 가운데 커다란 양철 책상이 보였다. 책상 위에는 종이들이 널려있고 언니 오빠들이 그 위로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어떤 언니는 얼굴을 구겼고, 어떤 오빠는 눈썹을 꿈틀거렸다. 내가 문을 쿵 닫자 다들 고개를 들었다.

이모가 우리를 소개하자 언니 오빠들이 반갑다며 손을 내밀었다. 악수로 인사를 하니 어른이 된 것 같고 어깨가 으쓱했다. 얼굴이 통통한 단발머리 언니가 엄마랑 나를 구석에 있는 소파로 데리고 갔다. 우유랑 동그랗고 딱딱한 과자를 주면서 잠깐 놀고 있으랬다.

이모랑 석주오빠가 책상 앞에 서자 언니 오빠들이 입을 열었다.

“어제처럼 도청 앞 분수대에서 모일거야. 조선대랑 광주교대 애들도 오기로 했어.”

“피켓은 ‘비상계엄 해제하라.’ 랑 ‘노동삼권 보장하라.’ 먼저 만들었어.”

“그래, 오늘도 힘내자. 민주주의만이 살 길이잖아.”

“아무렴. 자유가 없는 민족은 죽은 거랑 같지.”

“암, 우리가 나서야지. 다음 세대라도 민주국가에서 살 수 있게 말이야.”

석주오빠가 다음 세대라는 말을 하면서 엄마랑 나를 돌아봤다. 다른 언니 오빠들도 우리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이모랑 언니 오빠들은 다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다.

“엄마, 왜 울어?”

“넌 저 얘기를 듣고도 눈물이 안 나니? 흑.”

나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입만 삐죽댔다.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왜들 저러나 모르겠다. 어차피 민주국가가 될 건데 자기들끼리 저러는 게 더 이상했다.

그러고 보니 일기장에서 읽었던 기억이 난다. 날짜는 확실하지 않지만 오늘이 맞을 거다. 학생회실에서 친구들이랑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한 날이었다. 도청 앞 분수대에서 무슨 집회를 했다고도 쓰여 있었고. 거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모가 살고 싶은 조국에 대한 내용도 뻑뻑했다. 이모는 자유를 갈구한댔다.

이모랑 언니 오빠들은 피켓이랑 유인물, 글씨가 쓰인 머리띠를 챙겨 들었다. 도청 앞 분수대로 갈 시간이 됐다. 엄마랑 나도 소파에서 일어났다.

학생회실을 나와 교문까지 걸어가는 내내 이모랑 언니 오빠들은 희생, 민주주의, 자유, 미래 같은 말을 했다. 엄마는 아까부터 고개를 끄덕이거나 훌쩍이면서 엄청 열심히 들었다. 나도 귀를 쫑긋 세웠다. 엄마가 나를 상대도 안 해줘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교문에는 아까처럼 똑같은 까만 옷을 입은 아저씨들이 서 있었다.

“도청 앞으로 가는 건가? 질서 좀 잘 지켜주시게.”

머리가 희끗희끗한 게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아저씨였다.

“당연하죠. 저희는 평화시위라니까요.”

“그래. 먼저들 가계시게. 우리도 일부는 그리로 갈 것이네.”

석주오빠랑 아저씨는 서로 조심하라고도 했다. 엄마 말로는 저 아저씨들이랑 언니 오빠들은 다른 편이라던데. 아저씨들이 민주화성회를 못 하게 언니 오빠들을 막 때리고 잡아간다고 했다. 그런데 서로 인사도 주고받고, 조심하라고 걱정도 하는 걸 보면 서로 다른 편 같지 않았다. 다른 편이어도 서로 싫어하지는 않든가.

언니랑 오빠들이 이모한테 내일 보자고 인사를 했다. 우리한테도 다음에 보자며 손을 흔들었다. 깜짝 놀란 내가 우리는 같이 안 가는 거냐고 물었다.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다. 언니 오빠들이 뭘 하는지 관심이 조금 생길락 말락 하는 참이었는데.

“다음에. 다음에 같이 가자. 같이 갈 일이 없으면 더 좋고.”

우리한테 간식을 준 단발머리 언니가 알 듯 모를 듯한 말만 했다.

언니 오빠들이 저만큼 갔는데도 석주오빠랑 이모는 손을 맞잡고 한참이나 서로를 바라봤다. 분명 눈에서 하트가 뿜뿜 나오고 있을 거다. 딱 보기에든 완전 핑크빛이었다.

“언니, 우리 빨리 집에 가자.”

엄마가 괜히 눈치 없는 척을 했다. 엄마는 정말로 석주오빠를 싫어하나 보다.

석주오빠는 아쉬운 듯 자꾸 뒤를 돌아봤다. 이모랑 나는 엄마 손에 끌려 집에 왔다. 대문까지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겼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순미 배고프지?”

이모가 아닌 엄마를 먼저 챙기는 할머니라니.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난다.

“우리 순미 내일 엄마랑 서울 갈 거지?”

할머니가 고기를 집어 엄마 밥그릇에 올려놨다. 푹. 내 입안에 있던 밥풀이 튀어나왔다. 엄마는 그림 그렇지 하는 얼굴로 싫다고 박박 우겼다.

“아버지 서울서 맹장 터졌다는데 그럼 나 혼자 가냐?”

“언니랑 가면 되잖아.”

“언니는 공부해야지.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너 있으면 거치적거려. 네가 눈앞에 없으면 어미 마음이 안 놓이기도 하고.”

엄마는 죽어도 안 간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꼬마아가씨인 엄마가 할머니를 이길 수는 없었다. 엄마는 분하다며 엉엉 울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엄마는 한 말을 하고 또 했다. “이모 옆에서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알았지?” 하고 말이다. 이럴 때 보면 엄마는 할머니랑 진짜 똑같다.

아침을 먹자마자 할머니랑 엄마는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할머니는 “은별이 나중에 또 놀러 와라.” 하고 대문을 나섰다. 할머니는 내가 집에 가는 줄 아나보다.

나는 이모를 따라 이모네 학교로 갔다. 처음에 이모는 나를 절대로 못 데리고 간댔다. 엄마가 밤새도록 이모를 조르고 또 졸라서 겨우 허락을 받았다.

엄마 말에 따르면 내 부모님은 돈을 벌기위해 아주 먼 나라에 갔다. 나를 키워 주는 외할머

나는 광주 병원 어딘가에 누워있다. 퇴원하려면 일주일쯤 더 있어야 한다. 그동안 나는 이 집에 있을 수밖에 없단다. 이모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엄마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 엄마는 완전 거짓말선수다.

이모랑 나는 어제처럼 학생회실로 갔다. 어제보다 더 많은 언니 오빠들이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서 이모가 준 우유를 훌쩍훌쩍 마셨다.

이모랑 언니 오빠들은 책상 위에서 뭔가 열심히 했다. 페인트 통에 담긴 붓으로 글씨를 쓰고 그림도 그렸다. 연합이랑 투쟁이 어찌고 하는 말도 들렸다. 혼자 멍뚱멍뚱 있는 것도 지루해서 나는 방안을 왔다 갔다 했다. 책상 위에 있는 종이를 만지작거리던 내가 이게 뭐냐고 물었다.

“깨달음을 주는 글이지.”

“자유를 얻는 주문이야.”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고나 할까.”

언니 오빠들이 한마디씩 했다. 알쏭달쏭한 말들이지만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있나보다. 다 똑같아 보이는 내용인데 일일이 손으로 쓰는 게 엄청 힘들어 보였다. 프린터기로 한 번에 뽑으면 좋을 텐데.

내가 “저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묻자 언니 오빠들이 서로 눈빛을 나눴다. 정말 할 수 있겠느냐고 이모가 물기에 “당연하죠. 저 경필쓰기대회에서 상도 받았어요.” 하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래. 은별이가 도와주면 더 의미 있을 거야.”

이모가 붓을 내밀었다. 나는 새 종이 위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책상 위에 있는 종이에 쓰인 글을 따라 썼다.

‘학우들이여! 우리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 일어나라!’

내가 붓으로 마지막 느낌표를 딱 찍자 언니 오빠들이 박수를 쳤다. 이모는 두 눈에 눈물까지 그렇그렇해서는 내 어깨를 꼭 감싸 쥐었다. 경필쓰기대회 최우수상에 빛나는 내 글씨에 모두 훌쩍 반한 게 틀림없었다.

얼마나 글씨를 많이 썼는지 나중에는 팔이 빠질 것처럼 아팠다. 나는 소파에 드러누웠다.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에 눈이 떠진 걸 보니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사망이 어두워서 너무 무서웠다. 벌떡 일어나려는데 다시 말소리가 들렸다.

“순영아, 너무 위험해. 너는 학생회도 아닌데 괜히. 나중에 누가 쓴 건지 알려지면 재적이 아니라 잡혀갈 수도 있다고.”

코맹맹이 목소리가 딱 뽀뽀머리 석주오빠였다.

“우리 애들이 생각해 봐. 개들이 지금처럼 독재만 있고 빛은 없는 시대에 살면 좋겠어?”

이모가 따지듯이 물었다.

“물론 나도 자유를 원해. 지금 세상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나한테는 순영이 네가 더 중요해.”

“나도 무서워. 하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못 본 척 살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가로등 불빛 한 줄기가 창문으로 들어왔다. 어렴풋하게 방안이 보였다. 책상 앞에 앉은 그림

자 두 개가 눈에 들어왔다. 고개를 든 그림자랑 허리를 숙인 그림자가 포개어졌다. 한참동안 하나였던 그림자가 다시 두 개가 되었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코를 훌쩍였다.

나는 두 눈을 꼭 감아버렸다. 두 사람 말을 몽땅 알아들은 것도 아니고, 왜 우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냥 가슴에 커다란 바위덩어리가 들어있는 것 같이 답답했다.

다음 날, 이모랑 내 하루는 전날이랑 비슷했다. 학생회실에 가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게 대부분이었다. 문구는 달라도 희생, 민주주의, 자유, 미래 같은 말은 꼭 들어갔다. 어떤 종이는 학생들한테 나눠 주고, 어떤 종이는 벽에 붙였다. 그 중에는 내가 쓴 글씨도 제법 있었다. 웬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언니 오빠들이 집으로 간 다음에도 석주오빠랑 이모는 남아서 책 같은 걸 만들었다. 오빠가 말한 잡혀갈지도 모르는 글인 것 같았다. 오늘도 나는 자는 척을 했다. 석주오빠랑 이모가 둘만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이때뿐인 것 같아서다. 나는 엄마처럼 눈치 없는 척은 하고 싶지 않았다.

어제랑 다른 건 석주오빠까지 셋이서 같이 집에 왔다는 거다.

“은별아, 잠깐 집에 혼자 있을 수 있지?”

이모가 나를 대문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집에 혼자 있을 수는 있지만 이모랑 떨어지는 건 안 된다.

“오늘은 못 데리고 가.”

“그래. 오늘은 햇불이 있어서 위험할지도 몰라.”

이모가 말하는데 석주오빠가 끼어들었다. 지금만은 엄마가 왜 오빠를 싫어하는지 딱 알겠다. 엄마는 이모 남자친구라서 더 싫어하는 거겠지만.

나는 이모를 이길 수 없었다. 이모랑 오빠 눈에 나는 보호해야 하는 꼬마나무, 꼬마아가씨일 뿐이니까.

다락방에 혼자 누웠다. 도대체 자유가 뭐기에. 민주주의가 뭐라고 우리 이모가 저러는 걸까. 잡혀갈지도 모른다면, 햇불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면서. 왜지. 민주주의는 그냥 저절로 온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민주국가에서 살 수 있는 건 언니 오빠들 덕분인 걸까.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누가 “고은별.” 하고 불러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눈앞에 엄마가 떡하니 서 있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나한테 “내일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도망쳤어.” 하고 말한 엄마는 햇바닥을 쪽 내밀었다. 맙소사!

서울에서 할머니가 전화를 하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집에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다. 할머니가 이웃집에 전화를 걸었다. 우리 엄마는 정말 사고뭉치다.

“오면서 봤는데 뭔가 이상해. 전국에 있는 군용차가 전부 광주로 들어오는 것 같더라니까. 일반 차는 시내로 못 들어오게 하고 말이야. 나도 못 들어올까 봐 조마조마했네, 아휴.”

엄마는 할머니가 화난 거에는 관심도 없는 눈치였다. 이모 걱정만 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는 이모가 집에 올 때까지 잠도 안자고 기다렸다.

새벽에 들어온 이모는 몹시 지쳐보였다.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가 다 헝클어져 있었다. 이모가 입고 있는 하얀 블라우스에 흰 흙탕물을 보자 나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졌다. 석주오빠가

군인들한테 잡혀갔다면 울던 이모가 겨우 잠이 들었다.

“석주놈 지만 잡혀가면 되지. 왜 우리 언니까지 힘들게 해.”

엄마는 앉은뱅이책상을 발로 뺨 쳤다.

드디어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이모가 저 세상으로 간 1980년 5월 18일 아침이 밝은 거다. 엄마는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눈이 토끼처럼 새빨갰다.

“고은별, 오늘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걱정하지 마, 엄마.”

우리는 어제 이모가 잠들고 나서 계획을 다 세워 두었다. 이모가 밖에 못나가게 막을 거다. 무슨 방법을 쓰든 말이다.

엄마랑 나는 창문부터 검은 보자기로 덮었다. 이모가 아침인 줄 모르고 폭 자길 바라면서. 나는 이모가 밤까지 절대 깨지 않기를 빌고 또 빌었다.

이모가 “어머, 어떡해.”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 벽시계랑 창문을 번갈아 보던 이모는 검은 보자기를 획 걷어냈다. 방안으로 갑자기 들이치는 햇살에 눈이 부셨다.

이모는 못에 걸린 옷을 집더니 아무렇게나 꿰어 입었다. 엄마랑 나는 방문 앞에 섰다. 두 팔을 있는 대로 넓게 벌리고 이모 앞을 막아선 거다.

“애들이 왜 이래? 비켜. 늦었어.”

이모가 발을 동동 굴렀다. 엄마는 “절대 못 가. 지금 나가면 안 돼.” 하고 그 자리에 발이 딱 붙은 사람 같이 굴었다.

이모가 옆으로 밀었지만 엄마는 꿈쩍도 안 했다. 엄마를 흘겨본 이모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내가 “절대로 못 가요.” 하고 말하자 이모는 금방 갔다 오겠다고 하며 우리를 달랬다.

“지금 가면 잡혀갈 거예요.”

내가 도리질을 치자 이모가 끙 소리를 냈다.

“어려서 아무 것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아니다. 알고 있으니 오히려 잘됐다.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너희도 알지? 오늘 우리는 자유를 쟁취할거야. 당당하게 나서서 외칠 거라고.”

“그걸 왜 언니가 해? 다른 사람이 해도 되잖아.”

엄마가 소리를 뺨 질렀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나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고.”

“지금까지 열심히 싸웠으니까 이번 한 번만 참아도 되잖아요.”

내 목소리가 달달 떨렸다.

“나는 그렇게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게 왜 비겁해? 언니가 죽으면 아빠랑 엄마는? 나는? 우리 식구보다 나라랑 국민이 더 중요해?”

“조국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야. 내가 바라는 건 누구나 자유롭게 사는 그런 국가야. 우리 순미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

“난 독재국가라도 상관없어. 언니랑 같이 사는 게 더 좋아.”

엄마는 발로 방바닥을 쿵쿵 구르더니 “필요 없어. 그냥 가지마. 가지 말라고.” 하고 떼를 쓰며 엎드려 울었다. 이모가 들썩이는 엄마 어깨를 토닥이고 “금방 잤다 올게.” 하고는 방을 나가려고 했다. 나는 이모 소매를 잡았다.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이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을 꼭 다물고 뭘 생각하던 이모가 무릎을 굽혀 나랑 키를 맞췄다. 그러곤 내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다.

“그래도 괜찮아. 너희가 나를 기억해 줄 거잖아. 내가 너희를 위해, 조국을 위해, 미래를 위해 싸운 걸 말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지나간 일 따위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도 오늘을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뭔가 결심한 듯 주먹을 꼭 쥐고 이모가 앉은뱅이책상 앞으로 갔다. 이모는 비밀서랍을 열어 누런 종이로 돌돌 만 물건을 꺼냈다. 납작한 종이는 가운데손가락만한 크기였다. 종이를 받아든 내 손을 이모 손이 감쌌다. 이모 손은 아주 크고 따듯했다.

“그래도 누군가는 기억해 줄 거야. 난 그렇게 믿어.”

이모가 방문을 열었다. 눈물범벅을 한 엄마는 “순영이 언니” 하고 벌떡 일어났다. 책상 옆 나무장에 켜켜이 쌓인 이불 가운데에서 엄마가 구두를 꺼냈다. 이모를 밖에 못 나가게 하려고 우리가 감춰둔 거였다. 구두를 받아든 이모가 엄마랑 나를 꼭 안아주었다.

엄마가 “언니, 꼭 돌아와야 해.” 하며 울먹였다. 이상하게도 내 귀에는 “언니, 잘 가.” 하고 들렸다. 나도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았다. 나는 미안하다고 말해버렸다. 우리를 위해 싸워줘서, 우리를 대신해 희생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모가 쿵쿵대며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난 절대 순영이 언니를 안 잊을 거야. 오늘을 잊지 않을 거라고.”

엄마는 괜히 나한테 소리를 질렀다. 엄마 옆으로 다가간 나는 이모처럼 엄마 등을 토닥여 주었다. 나보다 키도 작고 덩치도 작은 엄마가 큰 소리로 울었다. 울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데 입이 탁 막히고 코끝이 시큰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엄마 등을 가만가만 두드려주는 것뿐이었다.

밖에서 뭐가 쓰러지면서 우당탕탕 했다. 곧이어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비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랑 나는 세모난 벽에 달린 창문으로 달려갔다. 앉은뱅이책상 위에 올라선 우리는 까치발을 했다.

머리를 질끈 묶은 여자가 골목 끝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몽둥이를 든 경찰이 손을 휘두르자 여자가 옆으로 픽 쓰러졌다. 붉은 피가 바닥에 긴 줄을 그렸다. 담벼락에서 라일락 꽃잎이 떨어져 붉은 핏줄기 위에 내려앉았다. 경찰 구둣발에 라일락 꽃잎이 짓이겨졌다.

엄마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엄마를 방바닥으로 끌어내린 나는 나무장 위에 있는 이불을 꺼냈다. 엄마 머리 위에 이불을 덮고 나도 안으로 쪽 들어갔다. 우리는 꼭 껴안았다.

두두두다다다 헬리콥터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창문을 넘어 다락방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귀가 멍멍 했다. 헬리콥터가 바로 옆에 있는 것만 같아서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뭐하는데 이려고 있냐?”

감은 눈두덩이 위로 따듯한 빛이 쏟아졌다. 살며시 눈을 떴다. 머리가 새하얗고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우리 할머니가 보였다.

“엄마, 흑. 순영이 언니가, 형. 나를 위해서, 꼭. 우리를 위해서, 훌쩍.”

더는 꼬마아가씨로 안 보이는 뽀글머리 우리 엄마였다.

할머니는 “꿈꿨냐?” 하고 핀잔을 주었다. 엄마가 뭐라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도 엄마 등을 조용조용 쓸어주었다. 엄마는 울먹이면서 할머니한테 기대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뒤통이 손바닥을 툭툭 찔러서 손을 펴 보니 누린 종이가 있었다. 바닥에는 엄마랑 실랑이를 하다 찢어진 낡은 일기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게 보였다. 일기장은 찢어진 자국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말짱했다. 나는 옆드린 채로 일기장을 넘겼다. 마지막 일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1980년 5월 17일

내일이면 모든 게 끝이 날거다.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거다. 우리는 군사독재를 몰아내고 자유가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이다.

혹시 일이 잘못되는 건 아닐까,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든다. 하지만 이건 그 량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우리 순미만은 이런 어두운 세상이 아닌, 밝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빛으로 한발자국 다가가게 하는 일이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망설인단 말인가. 힘을 내어야지.

일이 끝나고 나면 심으려고 꽃씨를 얻어 두었다. 이 꽃이 피어날 때마다 기억해야지. 미래를 위해, 자유를 위해 온 몸을 바친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지.

혹 내가 잘못된다면 누가 이 꽃씨를 찾아 꼭 심어주길. 이 꽃이 피면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투쟁한 우리를 잠시만이라도 기억해주길.

“고마워, 이모.”

일기장을 덮은 손등위로 따듯한 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저녁을 먹기에는 이른 시간인데 할머니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거실 소파에 누운 엄마가 보였다.

나는 엄마한테 손을 내밀었다. 눈이 멍멍 부은 엄마가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그러곤 한 번에 끝까지 다 읽었다. 천장을 올려보거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일기장을 덮었을 때 엄마는 오히려 웃고 있었다.

“이건 태워서 순영이 이모한테 보내주자.”

엄마는 일기장을 태우기만 해도 이모한테 갈 거랬다. 나는 일기장을 태워서 나온 재를 꽃씨랑 같이 묻어주고 싶었다.

“지금 심으면 꽃이 피겠냐? 밥하다말고 뭐 짓이래.”

할머니는 타박을 하면서도 꽃삽이랑 물뿌리개를 찾아 주었다.

“여름에 심는 것도 있고, 겨울에 심는 꽃씨도 있어요. 이젠 지금 심는 거예요.”

꽃삽을 받아든 내가 마당 구석에 작은 구멍을 팠다.

“그렇지. 역시 우리 은별이는 똑똑하다니까.”

웬일로 엄마가 나를 추켜세웠다. 할머니가 무슨 꽃이냐고 물었을 때 엄마랑 나는 어깨만 으쓱 해보였다.

“우리 순영이는 과꽃을 좋아했는데. 과꽃이면 좋겠구먼.”

“아니지 엄마. 언니는 해당화를 좋아했지.”

“그랬나. 우리 순영이는 얼굴이 환한 게 해바라기 같았는데. 해바라기도 괜찮지.”

“엄마, 언니는 청초해서 물망초에 더 가깝지.”

할머니는 허허 웃으며 내가 판 구멍에 꽃씨를 넣고 흙을 덮었다. 물뿌리개를 든 엄마가 흙 위에 졸졸 물을 부었다. 할머니랑 엄마는 순영이 이모 이야기를 자꾸자꾸 했다.

“우리 은별이는 무슨 꽃이 필 것 같은고?”

쪼그려 앉은 할머니가 나를 올려다봤다.

“비밀이에요.”

나는 헛바닥을 쭉 내밀었다. 할머니가 “원 애도 싱겁긴.” 하고 웃었다. 엄마는 “뭐야. 수상하게.” 하고 눈을 흘겼다.

나는 김순영 꽃이 필 것 같다. 하지만 혹시 꽃이 안 피더라도 상관없다. 전처럼 이모한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할머니랑 엄마가 벌써 김순영이라는 이야기꽃을 활짝 피웠기 때문이다. 꽃이 피든 피지 않든 우리는 김순영 꽃을 잊지 않을 거다. 잊지 못할 거다. 절대로, 영원히 말이다.